

### 3. 데이콤-머독의 국내 위성방송 진출 선언

- (현황) 통합방송법 입법 지연으로 국내 위성방송이 지연되는 가운데, 최근 데이콤·머독이 합작으로 국내 위성방송 진출을 선언해 논란
- (위성방송의 의의 및 파급효과) 디지털화에 따라 多채널, 멀티미디어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화·멀티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기기산업, 콘텐츠산업 등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막대함
- (국내 위성방송 활성화를 위한 과제)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국내 사업자의 조기 진출 허용, 報道채널外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 허용, 방송프로그램(콘텐츠) 산업의 적극 육성

#### ○ 국내 위성방송 현황

- 통합방송법의 입법 지연으로 국내 위성방송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사업자에 심각한 타격
  - 현행 방송법상으로는 위성방송 사업자를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위성 발사 등 디지털 위성방송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는 거의 완료되었으며, 96년부터 KBS 2개 채널 시험위성방송 실시(세계에서 2번째)
  - 이로 인해 무궁화 위성(1,2호)의 방송용 중계기가 유휴화되고, 위성방송 진출을 준비해 온 주요 업체, 단말기 개발·제조업체 등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됨
  - 위성방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텐츠산업의 육성 등이 필수적이거나,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되지 못한 채 해외 위성방송에 노출될 위험
- 입법 지연 이유
  - 위성방송과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 허용 여부가 쟁점
  - 위성방송 조기 실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는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이 제기되었음
- 데이콤·머독의 진출 선언과 파장
  - 최근 데이콤은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프社와 합작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70개 내외의 채널로 국내 디지털 위성방송 진출을 선언함(지분은 데이콤 30%, 뉴스코프 15%, 나머지 55%는 국내 업체에 콘소시움 형태로 할당)
  - 특히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뉴스코프의 진출에 대해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국내 위성방송의 진로와 관련해 통합방송법 문제가 새롭게 부상함

○ 디지털 위성방송의 의의 및 파급효과

- 디지털 위성방송의 특징

- 수십 내지 수백개의 다채널 방송 실현
- 잡음없는 고품질· 고음질 실현
- 인터넷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형 부가서비스 제공 가능
- 초국경 개념의 글로벌 방송 가능
- 이러한 장점 때문에 디지털화는 위성방송에서 시작되어 지상파 방송까지 확대되고 있음<sup>1)</sup>

- 외국의 현황

- 미국: 94년부터 GM계열의 DirecTV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위성방송을 시작하였고 97년 들어서는 가입자가 300만을 돌파하여 흑자 전환
- 일본: 96년 10월 PerfecTV가 디지털 위성방송을 시작함. 가입자 확보가 부진하여 사업상 애로를 겪고 있으며, 머독 계열의 JSkyB와 합병 논의 진행 중임
- 영국: 상업적 위성방송의 최고 성공 사례로 꼽히는 BSkyB가 91년부터 아날로그 방송을 개시하여 95년부터 흑자 전환되었으며, 98년 상반기중 500개 채널의 디지털 위성방송 실시 계획

- 디지털 방송과 방송산업 구조 변화

-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라 채널(주파수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방송산업의 본질적 조건이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송에 대한 (산업구조나 방송 콘텐츠 양면에서) 기존 공공성 규제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함
- 이는 방송이 공공재적 성격을 탈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디지털 위성방송의 경우 세계적으로 소유구조 등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경우가 없음

- 위성방송의 막대한 파급 효과

- 정보화· 멀티미디어 시대를 앞당기는 새로운 사회간접자본
- 선진국에서는 방송영상산업이 새로운 국가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방송프로그램(content)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기기 산업: 위성 관련 시스템, 송수신장치, 유료방송시스템(CAS) 등 관련 기기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막대함. 특히 수신기(셋탑박스) 분야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망 분야임
-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방송프로그램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위성방송이

1) 미국과 영국은 올해부터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며, 일본은 2000년,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계획임

실시될 경우 방송프로그램의 해외 의존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도 제기되고 있음

### ○ 국내 위성방송 활성화를 위한 과제

#### - 조속한 위성방송 사업 실현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 선진국의 방송시장 개방 압력과 인접국 위성방송의 越境으로 위성방송시장의 대외개방은 불가피함
- 국내 사업자의 조기 시장 진입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임.

#### - 사업형태 및 사업자 구도의 조기 확정

- 위성방송 관련 현행 방송법 논쟁은 사업자의 자격에 집중되고 있을 뿐, 사업 추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업형태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다채널사업의 허용 여부, 위성방송사업자의 업무 영역 범위 등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함

#### - 대기업 및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 허용 불가피

- 막대한 투자비와 회임기간 등을 고려할 때 대기업 및 언론사의 참여를 전적으로 배제한 상태에서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함(케이블TV의 실패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됨)
- 다채널 공중파 방송 시대에 방송 규제는 '구조 규제'가 아닌 사후적 '내용 규제'로 전환되어야 함
- 여론 형성과 관련한 공공성 문제는 보도 관련 채널에 한해 이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함

#### - 콘텐츠 산업의 육성

- '국경없는 다수국 대상 방송 시대'에 방송 분야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방송 프로그램 생산능력임
-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 채널 방송업자나 독립프로덕션의 정책적 육성이 반드시 필요함. 이는 지상파 방송사가 소모 프로그램을 자체 조달하는 현 방식으로는 확보될 수 없음
- 위성방송이 허용될 경우 방송프로그램(콘텐츠)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그러나 이 문제는 위성방송 허용 시기를 늦춘다하여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님. 오히려 위성방송을 조기 허용하여 독립프로덕션이나 전문 채널 방송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임

(김 건 kgkim@hri.co.kr ☎724-4043)